

고향이
되어가는
우리동네
남산정

고향이
되어가는
우리동네
남산정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선화

김성화

김은숙

김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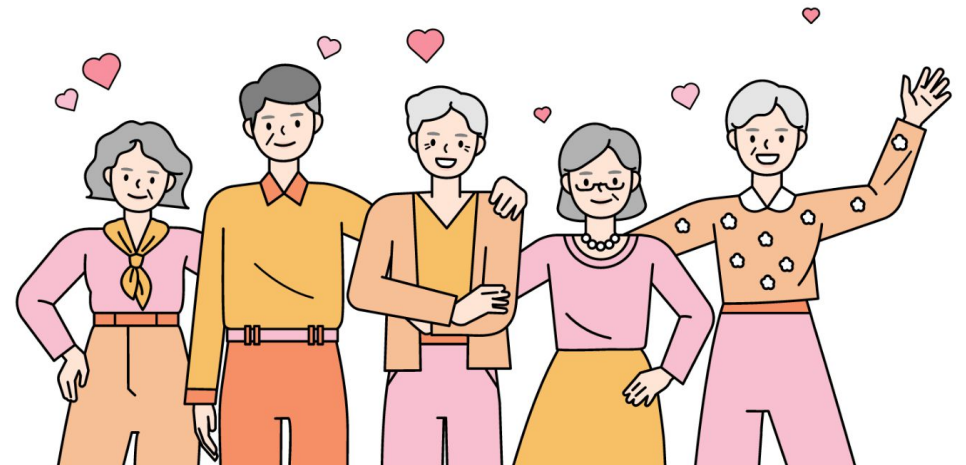
남정자

송혜숙

임숙정

정귀자

황오녀



고향... 국어사전에 고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아무래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2번은 뭘까요?

1번 보살 때부터 살아온 곳.

우선, 여기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원래의 집에서 태어난지, 이주했는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 살아있었는지,

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살아있었는지?

1번 마을에서 살아 간다면 고향과 같은 곳.

하지만 마을에서 살지 않는다면 고향과 같은 곳.

그렇습니다.

우선, 고향은 태어난 곳입니다.

마을에서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수많은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다른 곳에서는 태어난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세로 편지라고 하고 가로 편지라고 하는 것이

남은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마을에서 태어난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남은 것, 태어난 것, 태어난 것.

